

25 명의 합격자 복원 답안

국내 최초(最初), 최다(最多)표본의 발칙한 도전

막연한 논술 '공부' 가 아닌, 보다 정확하고 세분화된 접근으로 합격의 길을 열고자 25 명의 연고대 실제 합격자가 모여 자신의 답안을 직접 복원했습니다. 합격자복원답안. 입학처 홈페이지에도 없고, 시중 논술책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봅니다. 이 책을 읽게 될 학생들은 합격자들의 답안을 통해 '합격하는 답안' 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가능하고, 공부의 초점을 맞춰 나가도록 합니다.

'2011 학년도 고려대 오후' 의 복원 답안 3 편을 공개합니다.

(논술실록 본문 120~127 페이지)

I. 제시문 (1)을 요약하시오. (350~400 자)

제시문(1)은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에 대해 쓰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미래를 계산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필요한 요인들을 계산 가능하도록 수치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 예측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매우 다양하고, 인간이 언제나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인간은 감정에 치우친 결정을 내린다. 이들이 미래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그런데, 미래 예측이 불확실함에도, 인간에게 선택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자신보다 더 나은 정보를 가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선택을 따른다. 이를 ‘관행적 판단’이라 한다. 하지만 이를 통한 선택은, 선택을 지지하는 확고한 기반이 없으므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399자)

II. 제시문 (3)의 논지를 밝히고, 제시문 (1)과 제시문 (3)을 비교하시오. (600 자(±50 자))

제시문 (3)은 과학적 예측에 대하여 쓰고 있다. 과학적 예측을 위해서는 규칙성, 즉 법칙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설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 과학적 예측과 과학적 설명은 논증시점에만 차이가 있을 뿐 논리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 때, 연역법칙적 모형을 따른 예측과 귀납통계적 모형을 따른 예측이 존재한다. 전자는 보편 법칙에 의한 예측이고 후자는 통계적, 확률적 법칙에 의한 예측이다.

반면, 제시문 (1)은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다수의 변수가 존재하며, 예측 주체인 인간의 합리성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미래 예측 가능성에 대해 관점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두 제시문에서 나타난 미래예측 모형도 서로 다르다. 제시문 (1)의 관행적 판단에 의한 미래예측은 대안적 모형으로써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선택에 그나마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마저도 근본적으로 불안정성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반면 제시문 (3)에서처럼 연역, 귀납적 모형에 의해 합리적 예측이 가

능하다면, 이러한 대안은 필요치 않다. 이는 법칙의 인정여부에서 비롯된 차이이다. 관행적 판단은 법칙이 존재하지 않아 신뢰가 가는 타인의 결정을 따르는 것인 반면, 과학적 예측은 법칙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649자)

III. 제시문 (3)에 근거하여 제시문 (2)의 테이레시아스와 제시문 (4)의 도서의 발언에 관해 논평하십시오. (600 자(±50 자))

제시문 (3)에 나타난 과학적 예측은 어떠한 보편법칙이 존재해야 하며 선행조건들이 모두 성립되어야 가능하다. 또한 과학적 예측을 할 때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과정 하에 예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문 (2)의 테이레시아스의 발언을 보면 그의 발언이 타당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테이레시아스가 한 말은 신탁이다. 신탁은 어떠한 법칙에 근거하여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모습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말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신이 내린 말을 그대로 전하는 예언이다. 이를 제시문 (3)의 관점에서 보면 테이레시아스의 발언은 타당하지 않으며 신뢰성이 떨어지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제시문 (3)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시문 (4)에서 도서의 발언은 제시문 (2)의 테이레시아스의 발언보다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발언이다. 도서는 나라가 망할 때는 어떠한 징조가 미리 나타난다고 한다. 이 징조라는 것은 미신적인 징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일리 있는 징조이다. 이것은 어떤 현상을 가능성 있는 법칙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통한 도서의 예측은 제시문 (3)의 과학적 예측 방식 중 통계적 추정방식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626자)

IV. 제시문 (5)와 관련하여 다음 문항에 모두 답하십시오.

(IV-가)왕은 이오카스테에게 수수께끼 1 을 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오카스테는 방법 A 를 사용해서 수수께끼를 풀었다. 그런데, 방법 A 를 사용해서 수수께끼 1 을 풀었을 때가 수수께끼 2 를 풀었을 때보다 답을 맞춘 사람들의 수가 더 많다. 그러므로 이오카스테는 왕에게 수수께끼 1 을 받았을 것이다.

(IV-나)전령 1 은 방법 A 를 사용하여 수수께끼 1 을 풀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령 1 이 수수께끼를 맞힐 확률은 제시문(5)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0.8 이다. 다음으로, 전령 1 과 전령 2, 미디어 중에서 두 명 이상이 수수께끼 1 을 맞힐 확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령 1 이 수수께끼를 맞힐 확률은 0.8 이다. 전령 2 역시 0.8 의 확률로 수수께끼를 맞힌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는 0.5 의 확률로 수수께끼를 맞힌다. 세 명 중에 두 명 이상이 수수께끼를 맞히는 경우의 수는 전령 1 과 전령 2 가 수수께끼를 맞히는 경우, 전령 1 과 미디어가 맞히는 경우, 전령 2 와 미디어가 맞히는 경우, 세 명 모두 맞히는 경우이다. 각 경우의 수를 보면 첫 번째는 $0.8 \times 0.8 \times 0.5$ 두 번째는 $0.8 \times 0.2 \times 0.5$, 세 번째는 $0.2 \times 0.8 \times 0.5$, 네 번째는 $0.8 \times 0.8 \times 0.5$ 이다. 그러므로 세 명중 두 명 이상이 수수께끼를 푸는 확률은 이들을 모두 더한 0.8 이다.

(IV-다)크레온이 수수께끼의 답을 맞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법 B 를 사용해야 한다. <표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역전현상은 <표 2>와<표 3>에서 수수께끼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각각의 표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수를<표 1>에서 합쳐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크레온은 수수께끼 두 가지 모두를 받는 것이 아닌 한가지만을 받는 것이므로, 각각의 표에서 높은 정답률을 가지고 있는 방법 B 를 사용하는 것이 크레온이 수수께끼를 맞힐 확률을 높여줄 것이다.

I. 제시문 (1)을 요약하시오. (350~400 자)

경제학자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계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며, 미래의 위험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미래는 불확실하여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그 예측 대상이 먼 미래일수록 증가한다.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이유는, 첫째로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둘째로 인간은 합리성에 기초하여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되지만 종종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다수의 타인들의 행동을 따라가는 '관행적 판단'을 대안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런 '관행적 판단'은 그 판단의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 (377 자)

II. 제시문 (3)의 논지를 밝히고, 제시문 (1)과 제시문 (3)을 비교하시오. (600자(±50자))

제시문 (3)은 세상에 존재하는 법칙들에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칙에 의해 현상은 설명항이 되고, 이를 통해 과거를 설명하듯 미래 또한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의존한다면, 과학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법칙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못하면 단순한 법칙적 가설에 불과하다.

반면, 제시문 (1)에서는 미래 예측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미래는 수많은 요소들의 개입으로 불확실하며, 인간도 우리가 가정하는 것만큼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 예측이 불가능함에 대안으로 선택되는 것이 다수의 선택에 의존하는 '관행적 예측'이지만, 이조차 근거가 탄탄하지 않음을 문제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제시문 (1)과 (3)은 대조된다. 제시문 (1)은 미래 예측에 대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문 (3)에서는 미래 예측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에 의해 미래 예측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주장이 나타난다. 제시문 (1)은 관행적

판단에 근거한 예측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3)은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제인 합리적 법칙의 수립과, 이를 통한 연역 및 귀납적 방법의 미래 예측에 대해 논하고 있다. (633 자)

**Ⅲ. 제시문 (3)에 근거하여 제시문 (2)의 테이레시아스와 제시문 (4)의 도서의 발언에 관해 논평하십시오.
(600 자(±50 자))**

제시문 (3)에 따르면, 인간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으나 이는 합리적인 법칙에 의존한 예측이어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인 법칙이란 이미 충분히 잘 검증된 법칙을 말한다. 법칙이 충분히 합리적이면, 그에 따른 예측 또한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 때 제시문 (3)은 법칙으로부터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연역적 모형과 귀납적 모형을 제시한다.

제시문 (2)의 테이레시아스의 예언은 비록 적중하기는 했지만, 제시문 (3)의 관점에서 합리적 예측이라고 볼 수 없다. 예언의 근거와 논증 방법 모두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의 예언은 신탁에 근거하며, 검증된 규칙성에 의존하지 않는다. 또한, 보편적 법칙으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된 것도 아니며, 사례를 통해 귀납적으로 도출해 낸 것도 아니다.

반면, 제시문 (4)의 도서의 발언은 비교적 합리적이다. 진나라가 간언하는 신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과, 중산국의 위계 질서가 바로 서지 않았던 사실은 국가 멸망이라는 결과를 낳는 선행 조건이다. 이에 도서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어떠한 법칙이 적용되어 두 나라는 멸망한 것이다. 이때 이들의 멸망 사례는 귀납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계가 된다. 다만, 합리적으로 수립된 법칙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점이 완벽한 합리적 예측을 불가능하게 한다. (646 자)

4 번의 수리문제는 복원 불가하였습니다.

답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에서의 억지 복원은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합격자의 합리적 선택을 존중하여

해당 문제를 복원하지 않습니다.

I. 제시문 (1)을 요약하시오. (350~400 자)

미래의 예측에 관하여, 고전적 경제학자들은 사실과 예상은 확정적이기에 확률적으로 그 계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진다. 즉, 확률의 계산을 통하여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예측은 불확실하다.

예측의 불확실성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판단의 순간과 그 판단의 결과 사이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이 변수는 결과의 영향요소가 되어 우리의 예측은 어긋난다. 둘째, 판단의 주체인 인간은 고전경제학의 가정처럼 합리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인간은 번덕과 감정, 그리고 우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위와 같은 예측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현실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기에 타인의 판단에 의지하는 관행적 판단을 한다.이 판단은 기반이 취약하여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391 자)

II. 제시문 (3)의 논지를 밝히고, 제시문 (1)과 제시문 (3)을 비교하시오. (600 자(±50 자))

제시문 (3)의 논지는 미래에 관한 합리적 예상으로서 과학적 예측의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학적 예측이 가능한 이유는 세계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어떠한 규칙성이 있기 때문이다.이 규칙성을 하나의 법칙으로 파악하여 인간은 미래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다.

제시문 (1)은 미래의 예측에 관하여 논하였다는 점에서 (3)과 그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예측 가능성과, 그 예측의 주체인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예측의 가능성의 측면에서,(1)과 (3)은 각각 부정적,긍정적 입장을 지닌다. 우선,(1)이 미래의 예측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지니는 근거는 현실의 다양한 변수의 존재이다. 이러한 변수는 곧 예측된 결과의 변화를 가져온다. 반면,(3)은 인간이 세계의 규칙성을 과학적,법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예측에 관하여 긍정적이다.

예측의 가능성에 관하여 위와 같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 제시문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요컨대,(1)은 인간을 번덕스럽고 감정적이며 일관성이 없는 존재로 인식하여 관행적 판단을

내린다고 보았다. 반면,(3)의 인간은 세계의 규칙을 찾아낼 줄 아는 주체이며 이에 따라 합리적 예측을 하는 존재이다.(616 자)

**III. 제시문 (3)에 근거하여 제시문 (2)의 테이레시아스와 제시문 (4)의 도서의 발언에 관해 논평하십시오.
(600 자(±50 자))**

제시문 (3)의 인간은 어떠한 행동을 위하여 미래를 예측한다. 이러한 예측은 일정한 법칙과 선행조건으로부터 연역적,귀납적으로 추론되어야 하며, 그 과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이것이 바로 과학적 예측이다.

이를 근거로 (2)의 테이레시아스와 (4)의 도서의 발언에 관하여 논하면 다음과 같다.

(2)의 테이레시아스의 발언은 (3)에 의하면 과학적 예측이 아니다. 테이레시아스는 예언가로서 오이디푸스와 라이오스에게 예언을 한다.이 예언은 아폴론,신에 의한 신탁이며 이는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실현된다. 즉,테이레시아스의 발언은 (3)에서 제시한 예측의 선행조건인 법칙과 규칙성은 나타나지 않으며, 그에 따라 합리성과 과학성도 결여된 발언이다.

(4)의 도서의 발언은 앞서 언급한 테이레시아스의 발언과는 달리,(3)의 입장에서 과학적 예측이다. 우선,도서는 과거의 사례와 경험을 선행조건으로 활용하였다. 나아가, 이에 대해 일정하게 작용되는 어떠한 법칙을 근거로 귀납적으로 추론하여 앞날을 예측하였기에, 합리성과 과학성도 지녔다. 즉, 도서의 발언은 선행조건과 법칙성을 지녔고, 이에 따른 귀납 통계적 모형을 통한 예측이기에 과학적 예측이라 하겠다. (589 자)

IV. 제시문 (5)와 관련하여 다음 문항에 모두 답하십시오.

(가)-이오카스테가 받은 수수께끼가 1 번인지 2 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표 1>에 제시된 방법 A 를 사용하여 문제를 맞출 확률인 0.7 과 <표 2>와 <표 3>에 제시된 확률을 곱해야 한다. 우선,수수께끼 1 을 받았을 확률은 $0.7 \times 0.8 = 0.56$ 이다.다음으로,수수께끼 2 를 받았을 확률은 $0.7 \times 0.4 = 0.28$ 이다.여기서 $0.56 > 0.28$ 이므로, 이오카스테는 왕에게 수수께끼 1 번을 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

(나)-우선,전령 1 이 답을 맞힐 가능성은 수수께끼 1 과 방법 A 를 사용했기에,<표 2>를 통해 0.8 임을 알 수 있다.다음으로,이제 전령 1,전령 2,메디아 세 명 중 두 명 이상이 수수께끼 1 을 맞힐 가능성을 구해보자.세 명 중 두 명 이상이 답을 맞힐 가능성은 두 명만 맞히는 경우와 세 명 모두 맞히는 경우가 있다.두 명만 맞히는 경우는 $0.8*0.8*0.5=0.32$ 와 $0.2*0.8*0.5=0.08$ 그리고 $0.8*0.2*0.5=0.08$ 이 있다.또한 세 명 모두 맞히는 경우는 $0.8*0.8*0.5=0.32$ 로,이를 모두 더하면 0.8 이 도출된다.이는 앞서 구한 전령 1 이 답을 맞힐 확률과 동일하다.

(다)-크레온은 위 표를 분석하여 역전현상을 발견한다. 이 역전현상은 표본에 차이에 의해 나타난다.방법 A 를 통해 문제 1 을 푼 사람은 750 명, 문제 2 를 푼 사람은 250 명이다.또한 방법 B 를 통해 문제 1 을 푼 사람은 250 명이지만 문제 2 를 푼 사람은 750 명이다.이처럼 표본의 차이로 인하여 역전현상이 일어난다.

크레온은 방법 B 를 사용하여야 정답률을 높일 수 있다. 물론,<표 1>에 의하면 크레온은 방법 A 를 선택해야 하지만,역전현상이 일어났기에 각 상황 별로 이해해야 한다.즉,수수께끼 1 의 경우, 방법 A 를 사용하면 0.8, 방법 B 를 사용한다면 0.9 의 확률로 맞출 수 있다.또한,수수께끼 2 의 경우,방법 A 를 사용하면 0.4, 방법 B 를 사용하면 0.5 의 확률로 답을 구할 수 있으므로 크레온은 방법 B 를 사용하여야 한다.